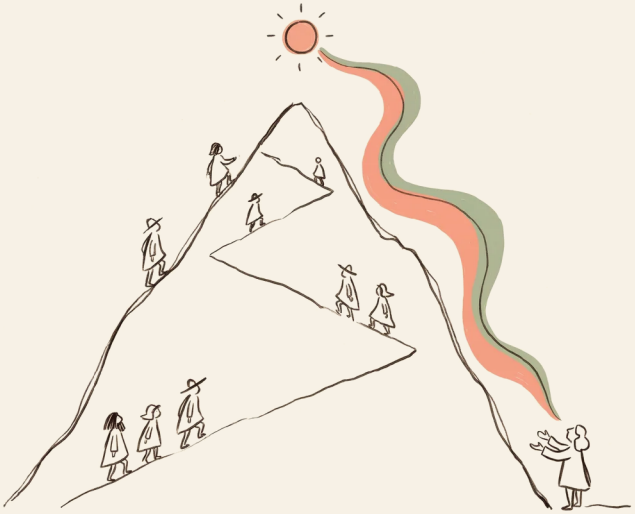
그 길

왜 기독교인가

올라가는 종교, 내려오신 하나님



그림과 도표로 견주어 보는 이야기

차 례

왜 기독교인가

하나 모든 종교는 같은 말을 할까? 4

둘 사람은 어떻게 신에게 가려 할까? 7

셋 그런데, 거꾸로 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 10

넷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될까? 13

다섯 기독교는 배타적일까? 16

정리 한 문장으로 하면 20

그다음 이야기 25

하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26

둘 교회는 무엇을 할까? 28

셋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30

넷 진짜는 어떻게 알아볼까? 32

다섯 어떤 교회로 가야 할까? 35

✎ 함께 나눠 볼 물음 38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내 잘못은
어떻게 씻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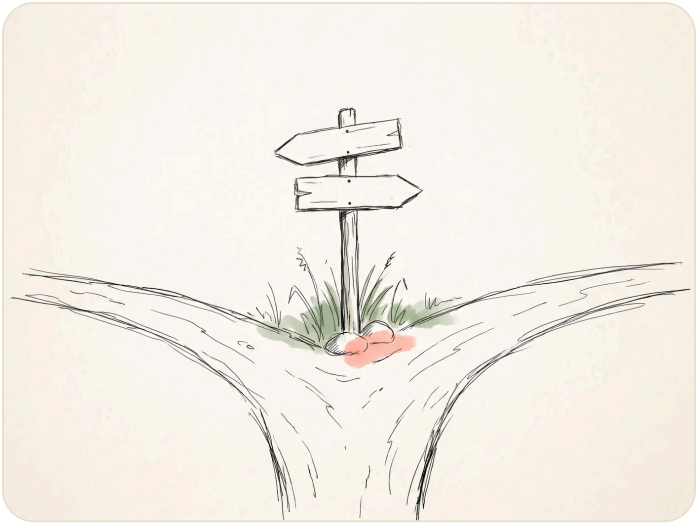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구나 품고 사는 물음입니다. 종교들의 답을 같은 잣대로, 솔직하게 견주어 봅니다. 이기려는 글이 아니라, 먼저 만난 좋은 소식을 나누려는 글입니다.

하나

모든 종교는 같은 말을 할까?



둘 다 틀릴 수는 있어도,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

이슬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꾸란 4:157)

신은 어떤 분인가?

- 기독교 인격이신 한 하나님 (성부·성자·성령)
- 이슬람 인격이신 한 하나님, 삼위일체는 아니다
- 힌두교 많은 신, 그 뒤의 궁극 실재 브라만
- 불교 세상을 지은 창조주를 세우지 않는다

예수는 누구인가?

- 기독교 사람이 되신 하나님
- 이슬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은 아니다
- 유대교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 힌두교 여러 스승이나 화신 가운데 하나

죽음 뒤에는?

- 기독교 한 번 죽고, 부활과 심판
- 이슬람 한 번 죽고, 부활과 심판
- 힌두교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남(윤회)
- 불교 윤회, 열반에 들면 끝남

'나'는 무엇인가?

- 기독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히 이어지는 인격
- 힌두교 참 자아(아트만)는 곧 브라만
- 불교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무아)
- 이슬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부활 때 다시 산다

가장 중요한 물음에서 종교들은 서로 다르게, 때로는 정반대로 답합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가 다 맞다"는 말은 너그러워 보여도, 사실은 모든 종교에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은 틀렸다"**고 하는 셈입니다. 서로를 정말 존중한다면, 다른 것을 다르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둘

사람은 어떻게 신에게 가려 할까?

답이 가장 크게 갈라지는 곳은 여기입니다.



① 신과 거래하기



② 스스로 오르기

방법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 위로

그런데 솔직히 묻게 됩니다. 얼마나 올라가야 충분할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도, 마음 깊은 곳의 부끄러움은 **내 힘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① 신과 거래하기. "이만큼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치고, 착하게 살면 신도 갚아 주시겠지." 그런데 얼마나 올려야 충분한지,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② 스스로 오르기. 고행하고, 닦고 또 닦아 깨닫고 벗어나려는 길입니다. 결국 사람이 높은 자리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 사람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

불교

문제	집착과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 끝없는 윤회
목표	열반, 괴로움과 윤회가 끝남
할 일	여덟 가지 바른길(팔정도), 계율, 명상. 붓다는 마지막에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유교

문제	덕이 모자라고 마음이 바르지 않음
목표	군자, 성인. 구원보다는 사람됨에 가깝습니다
할 일	몸과 마음을 닦음(수신), 예를 지킴, 배움

힌두교

문제	업(카르마)에 묶여 되풀이되는 삶
목표	해탈(목샤)
할 일	제사와 의무를 다하는 행위의 길, 지혜의 길, 고행, 헌신의 길. 헌신의 길에서는 신의 은총도 말합니다

이슬람

문제	하나님을 잊고 따르지 않음
목표	심판을 지나 낙원에 들어감
할 일	신앙 고백, 하루 다섯 번의 기도, 구제, 금식, 순례(다섯 기둥). 심판 날 행위를 저울에 단다고 가르칩니다(꾸란 7:8-9)

유대교

문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
목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묾
할 일	율법을 지키고, 어겼을 때 돌이킴(테슈바)

정토 불교

문제	말세라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음
목표	아미타불의 극락에 태어남
할 일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서원을 믿음(타력 신앙)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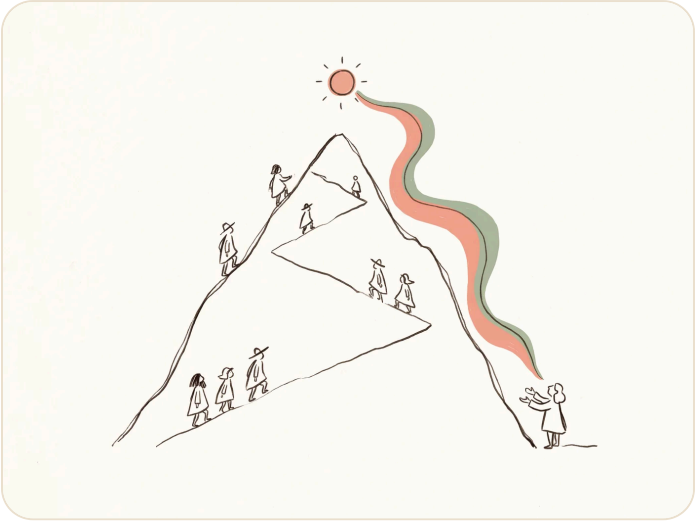
문제	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 아래 있음
목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짐, 영원한 생명
할 일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보탤 것은 없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 믿음도 공로가 아니라 선물을 받는 빈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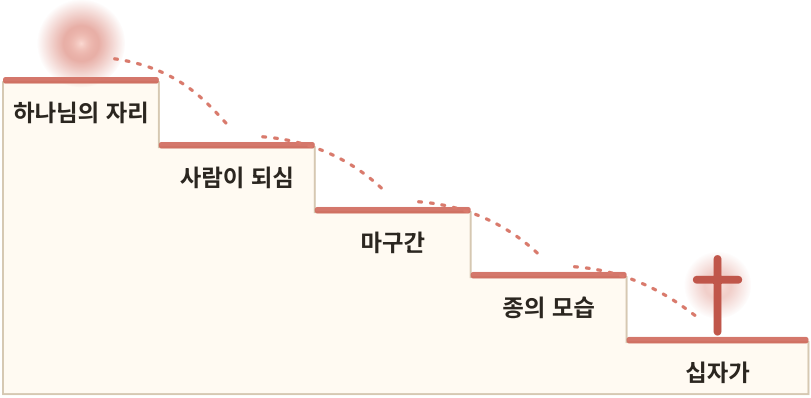
점의 자리는 각 종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 대략의 위치입니다. 더 깊이는 그 종교의 경전과 신자의 설명으로 들어 보세요.

셋

그런데, 거꾸로 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까지.

>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붙들고 있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
> 빌립보서 2:6-8

다른 종교에도 신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힌두교의 화신(아바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왕자나 영웅으로 와서 악을 물리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려고 온 하나님**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품꾼으로라도..."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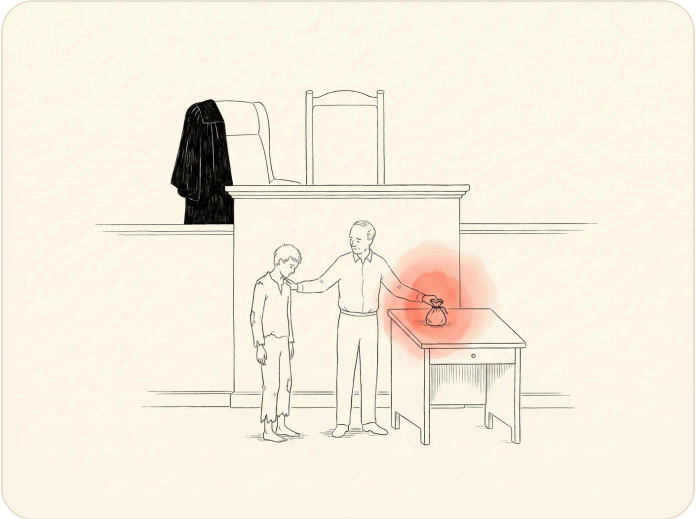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은 길에서 할 말을 연습합니다.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일해서 갚겠다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멀리서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 아직 먼 거리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
> 누가복음 15:20

넷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될까?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 값도 묻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재판관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 아들의 벌금을 대신 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때와 장소가 있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롬 3:23),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롬 6:23). 죄는 몇 가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내 가족을 해쳤는데 재판관이 "괜찮다" 하고 풀어 준다면,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덮으면 정의가 무너지고, 그대로 벌하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1

한 재판관 앞에 피고가 섰습니다. 바로 재판관의 아들이었습니다.

2

재판관은 법대로 벌금을 선고합니다.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3

선고를 마친 재판관은 법복을 벗고 내려와, 자기 돈으로 그 벌금을 대신 냅니다.

법은 지켜졌고 아들은 풀려났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
> 로마서 5:8

용서받은 잘못의 값은 어디로 가는가

힌두교·불교	업은 **스스로 갚습니다**. 그러느라 여러 생을 거칩니다.
정토 불교	아미타불의 서원으로 극락에 납니다. 남은 업은 그곳에서 수행하며 마저 풉니다.

이슬람	알라가 원하시면 **용서**하십니다.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스스로 값을 치르십니다**. 재판관이 법복을 벗고 내려오듯,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난 일

기독교는 이것을 신화나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가 있는 사건이라 역사로 따져 볼 수 있고, 기독교는 그 사건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다시 사신 예수를 한꺼번에 오백 명이 넘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사건 뒤 20여 년 만에 쓰면서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고전 15:6). 물어서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남에게 들은 것을 믿고 죽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그것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후 30년경 · 예루살렘 성 밖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때

>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
> 고린도전서 15:17

다섯

기독교는 배타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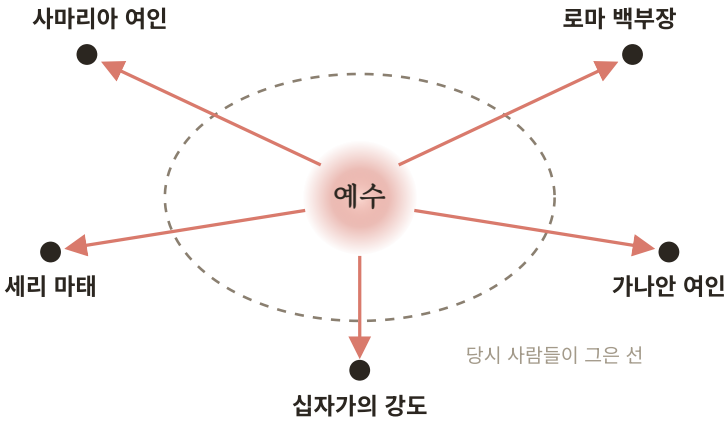
하나님이 직접 값을 치르신 길이라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 길, 그러나 가장 넓은 문

먼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배타적이라고 느껴진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차가운 말과 행동**이 한몫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한 일입니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하나라는 말은 좁게 들립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조건**을 보면 달라집니다. 선행이나 고행의 문은 그럴 힘과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앞섭니다. 은혜의 문은 아무 자격도 묻지 않습니다. 범죄자도, 늦게 온 사람도, 죽음을 앞둔 사람도 같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 곁의 강도도 그랬습니다(눅 23:43).



선을 넘어, 먼저 찾아가신 분

다른 민족, 다른 신앙, 점령군의 장교, 민족을 판 사람이라 손가락질받던 세리, 사형수. 예수는 당시 사람들이 그어 놓은 선을 넘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
> 갈라디아서 3:28



출구가 하나뿐이라면, 알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상구를 아는 사람이 "이쪽입니다!" 하고 외친다면, 우리는 그를 오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전하는 마음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문을 부수지 않고 두드리시는 분

예수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칼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을 여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루디아에 대해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말합니다(행 16:14).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믿게 하려 하지 않고, 다른 믿음을 가진 이웃을 **온유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벧전 3:15-16).

>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함께 먹을 것이다.
>
> 요한계시록 3:20

그래도 남는 물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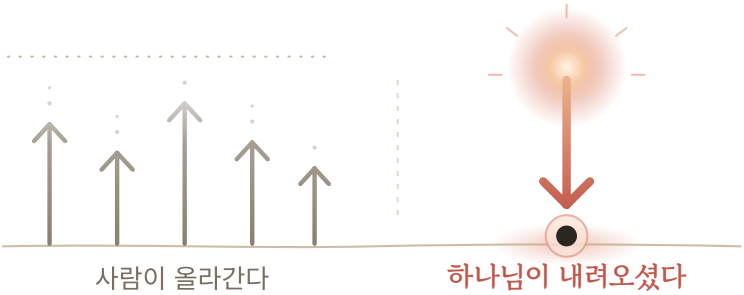
이 물음에 모든 답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내려다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배신당하고, 매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고통과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없는 날이 온다고 약속합니다(계 21:4).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의 일은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창 18:25).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의 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오셨다고 합니다(롬 1:20; 2:15).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제 들었습니다.**

정리

한 문장으로 하면



다른 길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에게 닿을 수 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오셨다."

처음의 세 물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은 어떻게 씻길까?

내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졌습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 **그 너머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

믿으라고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걸으신 길을 천천히 따라 걸어 보세요. 그 길에서, **먼저 당신을 찾아오신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어야 알 수 있는 것들

"먼저 알고 나서 믿겠다"는 말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거꾸로인 것이 많습니다. **믿고 한 걸음 내디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알고 → 믿는다	⇄	**믿고 → 안다**
머리로만 아는 길		걸어 보며 아는 길



수영

물이 나를 띄운다고 믿고 힘을 빼야, 뜬다는 것을 압니다. 버둥대면 가라앉습니다.



자전거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페달을 밟아야 압니다. 멈춰서면 넘어집니다.



비행기

원리를 다 알고 타는 사람은 드뭅니다. 타봐야 하늘을 압니다.



결혼

다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고 함께 살며 알아갑니다.



약

의사를 믿고 먹어야 낫는 것을 압니다. 설명서만 읽어서는 낫지 않습니다.



음식

맛은 설명으로 알 수 없습니다. 먹어봐야 압니다.



과학

과학자도 가설이 맞으리라 믿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그 뒤에 압니다.



아기

아기는 엄마를 다 알고 안기지 않습니다. 안겨서 엄마를 압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아무 데나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곁에 강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뜨는 것을 보았기에 몸을 맡깁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때와 장소가 있는 역사 속 사건, 목숨을 걸고 증언한 사람들, 앞에서 견주어 본 이야기들이 그 이유입니다. 그 위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그다음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수록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아 알아라.
>
> 시편 34:8

>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
> 요한복음 7:17

그러니 다 알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은 무엇일까?

성경은 그 한 걸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1

돌이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온 죄를 인정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2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나를 그분께 맡깁니다.

3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것도 내가 쌓는 공로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마음도, 믿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
> 로마서 10:9

그다음 이야기

내려오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부르심
갈릴리에서 열두 제자를 불러 곁에 두셨습니다 (막 3:14)

약속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 16:18)

값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엡 5:25)

기다림
하늘로 오르시며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행 1:4-8)

탄생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날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교회입니다 (행 2:1–41)

퍼짐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행 1:8). 그 교회가 오늘 우리 동네까지 왔습니다

신약성경이 쓴 '교회'(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먼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배당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집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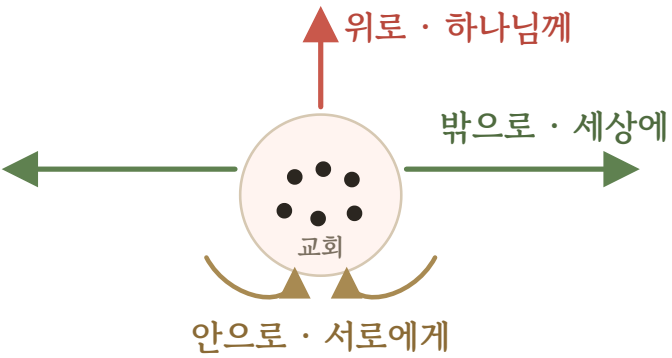
교회는 사람이 좋은 뜻으로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부르시며 직접 세우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
> 마태복음 18:20

교회는 무엇을 할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배 위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세례와 성찬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위로

서로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구합니다

말씀 안으로

성경을 함께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 갑니다

교제 안으로

가족처럼 밥을 먹고, 짐을 나누어 집니다

섬김 밖으로

가난하고 아픈 이웃을 돌봅니다

전도 밖으로

받은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귀며, 함께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나누었다.
>
> 사도행전 2:42-44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고전 12:27).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이어 갑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 가족이 되었다는 표이고, 성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식탁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불에서 떨어진 숯은 홀로 식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행 9:4).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습니다(엡 5:25). 그분이 목숨 걸고 사랑하신 가족을 두고 "나는 필요 없어요"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십자가 전날 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 17:21).

몸에서 떨어진 손가락은 아무리 건강해도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혼자 믿는 믿음은 쉽게 식고, 쉽게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 자라도록 지으셨습니다.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북돋웁시다.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서로 힘을 주십시오.
>
> 히브리서 10:24-25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라 실수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고침 받는 사람들의 병원**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막 2:17)고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끼리 모여 같은 의사에게 고침 받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예수님까지 떠나지는 마세요. 건강한 교회를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 방법을 아래에 적었습니다.

>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 고린도전서 12:21

진짜는 어떻게 알아볼까?



진짜 진주는 상처에서 나온 보석입니다

교회 곁에는 교회를 흉내 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 예수님을 다르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귀한 것 곁에는 흉내 내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길가의 돌멩이는 흉내 내지 않지만, 위조지폐는 진짜 돈만 흉내 냅니다. 그래서 진짜를 잘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 진짜	✕ 가짜
누가 구원하나	
○ **하나님이 100%** 하신다. 은혜로, 값없이	✕ **사람이 자격을 쌓아야** 한다. 행위, 규례, 헌신
예수는 누구인가	
○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구원자	✕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 부인). 또는 **다른 사람을 세운다.** 다시 온 주, 보혜사, 이긴 자
무엇을 더하나	
○ **더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 받을 뿐	✕ **무언가를 더한다.** 특정한 날, 숫자, 우리 단체
무엇에 근거하나	
○ **성경 전체**와 역사 속 사건	✕ **한 사람만 받은** 새 계시, 비밀 풀이

어떤 열매인가	
○ **자유와 사랑.** 가정과 이웃을 살린다	✕ **두려움과 비밀.** 가족과 끊게 한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린 가르침들은 거의 언제나 **"은혜만으로는 모자라다"**며 무언가를 덧붙여, 다시 '올라가는 길'로 되돌립니다.

진짜 진주는 이로 긁으면 까끌합니다. 진짜 복음도 처음엔 까끌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대신 상처 입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 가야 할까?



건강한 교회는 가까이 있고,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 건강한 교회	✕ 조심할 곳
무엇을 전하나	
○ **십자가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 **행위·축복·비밀 풀이**가 중심
누구를 높이나	
○ **예수님**을 높인다	✕ **목사나 교주**를 높인다, 그를 '보혜사'라 부른다

정체를 밝히나	
○ **교회 이름과 교단**을 밝히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	✕ **이름을 숨기고** 설문·심리검사·문화행사로 접근한다
사람을 대하는 법	
○ **자유롭게** 오가고,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 가족에게 **숨기라** 하고, 떠나면 두려움을 준다
돈	
○ 재정이 **투명**하고, 헌금은 기쁨으로 낸다	✕ 헌금을 **강요**하고, 재정을 감춘다

처음 가는 법

1. **집 가까운 교회 두세 곳**을 찾아보세요. 이름과 교단을 확인합니다.
2. **주일 예배에 그냥 가 보세요.** 뒷자리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색합니다.
3. **새가족 안내**를 받아 보세요.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도 됩니다.
4. 몇 주 다녀 보며 **위의 O·X**로 살펴보세요.

5 **작은 모임(소그룹)**에 들어가 함께 걸으세요. 거기서 교회가 가족이 됩니다.

길에서 "설문 좀 해 주세요", "심리검사 해 드려요", "좋은 성경공부가 있어요" 하며 다가오는데 어느 교회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조심하세요. 처음부터 교회 이름과 교단을 밝히지 않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릴 때는 가까운 교회의 목회자나, 각 교단의 이단 대처 기관에 물어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질문을 반가워합니다.

함께 나눠 볼 물음

1. 나는 지금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신 하나님' 가운데 어디에 서 있나요?

2.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3.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에게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이 있었나요?

4. 재판관 이야기에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5. 믿고 한 걸음 내디뎌서 비로소 알게 된 일이 있나요?

6. 이번 주에 가 볼 수 있는 교회는 어디인가요? 누구와 함께 가고 싶나요?

왜 기독교인가

올라가는 종교, 내려오신 하나님

펴낸 날 2026년 11월

펴낸이 김성수
대전 새로남교회 집사

만든 곳 SSSOFT

펴낸 곳

나누는 교회나 단체가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으세요

© SSSOFT

그림은 AI로 만들고 사람이 다듬었습니다 · 말씀은 새로 옮긴 글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일, 가까운 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길 시리즈



예수
사복음서로 걷는 예수의 발자취



모세와 여호수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열왕기
선지자를 따라 걷는 두 왕국



바울
다메섹 길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시편
광야와 왕궁에서 부른 노래와 기도, 그 자리에서



잠언
솔로몬의 지혜를 오늘의 길 위에서



GoodNews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네 가지 영적 원리



왜 기독교인가
올라가는 종교,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 — 그림과 도표로



thewaymap.org

그 길 — 성경의 길을 지도 위에서